

마음을 공부합시다

글 정도상 겨레말큰사전 부이사장

지금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날마다 증강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면 분단체제를 강화하려는 진영과 평화통일체제로 나가려는 진영과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보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분단체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살벌한 전투를 치르게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0년을 들여다보면, 한반도에는 두 개의 레짐(Regime, 가치, 규범 및 규칙의 총합)이 들어서서 분단체제라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레짐을 갖고자 열망했던 이데올로기의 괴물들은 6·25전쟁과 같은 민족사적 대참화도 주저 없이 선택했다. 6·25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대참화는 내면화되어 끝없는 비극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장벽10조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는 1945년 10월에 발표한 《건국론》에서 분단체제를 예감하여 장벽10조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국론》의 2장 정신편에서 우리 민족이 마주치고 있는 장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장벽 하나하나가 분단체제를 작동시키는 내면의 요소가 되고 말았다.

1은 각자의 주위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해서 서로 조화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2는 각자의 명예와 야상에 사로잡혀서 사기존인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요, 3은 불 같은 정권야욕에 침혹하여 대의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4는 그에 따라 시기와 투쟁을 일으키며 간교한 수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것이요, 5는 사체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일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6은 지방성과 파벌관념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7은 남의 세과를 적발하고, 사형과 숙원을 생각하여 널리 포용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요, 8은 사심과 이욕이 앞을 서고, 독립에 대한 정성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9는 그에 따라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10은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다.

장벽은 194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온갖 종류의 노선들이 등장하여 경쟁하다가 '1'의 상황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켰고, '3'의 상황이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에 대해 찬탁과 반탁이 서로 나뉘어 서로 살상을 서슴지 않았다. 1945년 12월 송진우가 암살당한 것으로 시작하여 1947년 7월의 몽양 여운형 암살, 1949년 6월의 백범 김구 암살에 이르기까지 '장벽'은 더욱 높아지기만 했다.

이 장벽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범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73년 동안 분단체제의 핵심적 의식이 되었다. 의식이 된 이 장벽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사회의 구조, 국가의 정체성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이 말한 분단체제의 내면화가 바로 송정산의 《건국론》에 나오는 이 장벽인 것이다. 이 장벽이 결국 내면화된 괴물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장벽10조를 경계하고 제거하는 마음공부

분단체제는 내면화되어 개인의 자아에서부터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성숙을

방해했다. 그렇기에 백낙청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마음공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음공부가 어렵다면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공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잘 안 되지요. 마음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공부인데도 일에 빠지다 보면 놓치기 쉽다는 뜻이겠지요.”

마음공부는 개인의 공부에 속한다. 하지만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마음공부가 절실하다. 사회적 마음공부란 마음에 들어 있고, 분단체제 안에서 내면화된 장벽10조를 경계하는 마음공부여야 한다. 사회적 마음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면화된 분단체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마음공부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법을 철저히 배워야 한다. ‘자기 존인(捨己尊人), 나를 버리고(양보하고) 너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장벽10조 타파의 핵심이며 마음공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물과 현상의 객관성을 객관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부가 절실하다. 분단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물과 현상의 객관성을 기득권의 입장에서 마음껏 왜곡하는 ‘빨갱이 지칭주의’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세력전에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에 옮겨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써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정산종사는 경고했다. 2019년 가을의 한국은 증오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북미와 남북은 잠시 중단되었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쪽 내부의 증오전은 나날이 증강현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증오전의 핵심은 장벽10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벽10조를 제거하는 사회적 마음공부가 절실하다. 장벽10조를 제거하는 사회적 마음공부의 핵심은 중도주의다. 중도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많지만 정산종사와 백낙청의 중도주의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산종사의 중도주의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의 시대적 높이에서 사유되었으며 유불선 통합적이고, 백낙청의 변혁적 중도주의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기를 거쳐 2010년대의 시대적 높이에서 성찰됐으며 시민적 혁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송정산의 중도주의

먼저 송정산의 중도주의는 《중용》의 중(中)과 도(道)에 기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이란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르고, 도란 성(性)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성이란 하늘이 사람을 낼 때 함께 주는 성품을 이른다. 또한 《중용》의 도는 “날마다 쓰는 사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치이니, 모두 성품의 덕이고 마음이 갖춘 것”을 말한다.

중도는 중립이 아니다. 중립은 의(義)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중도는 반드시 의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 중도는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다. 좌에도 중도가 있고 우에도 중도가 있는 것이 중도주의다. 좌와 우의 가운데를 중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에 옳은 것이 있으면 거기가 중


도요, 우에 옳은 것이 있으면 거기가 중도인 것이다. 상극을 지양하고 상생을 지향하는 것이 중도이다. 투쟁하는 사람들만 옳고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그르다는 인식과 논리 역시 중도가 아니다. 무언가에 대한 독점욕도 중도가 아니다.

정산중사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스럽게 성립되리라”고 했다. 이것이 곧 상생을 지향하는 중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정산의 중도주의를 시대는 외면했다.

남한에서 중도를 말하면, 사이비나 사꾸라로 취급받았는데 중도를 내세운 정치인들이 중립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어떤 정치인이 ‘극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남한에서 중도주의는 주목받지 못했고 실패했다. 정치의 표준이 사라진 것이다.

백낙청의 중도주의

다음으로 백낙청의 변혁적 중도주의는 분단체제의 변혁을 지향하는 개혁적 통합노선을 결합하기 위한 사상적 연대를 의미한다. 백낙청은 “중도가 아니고서는 광범위한 연대가 불가능한 데다가, 무원칙한 중도 마케팅이 아닌 쫓대 있는 중도세력이 되려면 한반도 차원의 변혁과 국내의 개혁 작업을 결합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당한 수준의 중도 공부와 변혁 공부가 필요할 텐데, 아직도 한국사회 특히 지식인 사회는 중도의 연마에 무관심하고 분단체제 극복으로서의 변혁에 대한 인식이 태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낙청은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식 통일이야말로 변혁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변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산의 중도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백낙청의 변혁적 중도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백낙청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주창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중도주의는 요원하다. 중도주의는 논문이나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공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마음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오와 증오는 평화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공부할 때이다. 



정도상

소설가. 1987년 단편소설 「십오방 이야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친구는 멀리 갔어도』, 『아메리카 드림』, 『찔레꽃』 등이 있고, 장편소설 『그대여 다시 만날 때까지』, 『낙타』, 『은행나무 소년』, 『마음오를꽃』 등이 있다. 제17회 단재상, 제3회 거창평화인권문학상, 제25회 요산문학상 수상, 아름다운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편찬사업회 상임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